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4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시며 우리의 비행사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동무들을 만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의 목적은 주체적인 항공군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우리의 항공군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을 총화하고 새 세대 비행사들을 비롯한 전체 비행사들을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또한 조국의 영광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비행사들의 애국적헌신성과 수고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고 비행사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전군의 장병들이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항공군강화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개최를 선언하시였다.

대회는 《비행사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길 조선인민군 륵군대장이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장령 김광혁, 군관들인 김철, 길훈, 리혜영, 김명철, 허용준, 주련옥, 허룡, 조세형, 김혁민, 한길, 김광남, 정주철, 최진혁과 유가족인 김혜영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였으며 대회휴식시간에 조국결사수호의 비상한 각오를 안고 어려운 비행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의 육탄용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고와 토론들을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이 당의 령도밑에 우리 항공군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을 다시금 돌이켜보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참가자들이 피땀을 흘려서 다진 맹세를 소중히 접수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토론들에서 강조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의 14명 육탄용사들이 발휘한

조국결사수호정신은 제2, 제3의 길영조정신이라고, 이런 정신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재부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14명 육탄용사들이 발휘한 정신을 당중앙은 높이 평가하며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정철주비행사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13명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되였다는 것을 만장에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영웅칭호를 정철주비행사의 안해 김혜영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김철, 안성혁, 량정룡, 전상렬, 김영철, 장영호, 조용철, 김철운, 한철호, 차영진, 정영남, 최창남, 조상기에게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웅한 비행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최고사령관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라

고 하시면서 항공군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군에서는 항상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을 기다린다!》는 구호를 들고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며 모든 비행사들이 당과 혁명을 하늘길에서 보위한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구름속 천리, 불비속 만리도 뚫고 날으는 불굴의 붉은 매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는 노래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의 합창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4월 16일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은 서곡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으로 시작되였다.

공연 무대에 여성독창과 방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기악과 노래 《자나깨나 수령님을 생각합니다》, 녀

성2중창과 방창 《빛나라 정일봉》,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독창과 방창 《장군님 생각》, 바이올린독주와 경음악 《매혹과 흥모》, 녀성독창 《내 삶의 보금자리》,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경음악과 노래연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녀성3중창과 방창 《아름다운 비행구름》, 녀성중창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의 종목들이 오르고 언제나 비행사들과 함께 계시며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서지자 관람자들은 추추치는 격정에 눈물을 적시며 박수갈채를 터치였다.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원함》,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종목들이 올라 공연은 절정에 이르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태양으로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공연은 종곡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17일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는 주체적인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항공군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의 육탄용사들과 그들의 안해들, 항공군의 부부비행사들, 녀성비행사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의 여러곳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개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아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보신 다음 국제친선소년회관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회관의 극장, 등산지식보급실, 전자오락실, 도서실, 국제친선실, 소년단실, 미술실, 솜씨전람실, 립체물동영화관 등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우리의 건축술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구내에 써붙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구호를 보시고 정말 좋다고, 저 구호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리친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야외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을 정말 잘 건설했다고, 운동장의 인공잔디, 관람석 의자, 물결모양의 푸른 채양이 조화를 잘 이룬다고, 모든 건축물들이 말 그대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예술작품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1각, 야영2각의 침실과 식당, 주방은 물론 편의시설들까지도 아이들의 동심에 맞다고, 당의 의도에 맞게 아이들이 제손으로 밥도 짓고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수 있게 로리실습실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을뿐만아니라 요소소소가 우리의 얼굴이 살아나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보장되었으며 당의 후대관이 비끼는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진하면서 예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진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당이 바라는 기준에서 개진된것만큼 마무리를 잘하고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조업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산물냉동과 절입에 필요한 시설들도 손색없이 건설

했으며 당에서 마련해준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관식극동기, 팽동차, 유조차, 지게차 등을 그쁘히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합숙과 휴게실을 어로공들의 정든 보금자리답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꾸민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특히 어로공들이 살게 될 다층주택지구를 은하과학자거리처럼 멋있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어로공주택지구를 어촌단풍마을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수산사업소는 불수룩 회한한 로동당시대의 걸작, 조선동해포구에 솟아난 선군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선창마다에 물고기가 차넘치고 물고기사태가 쏟아지면 이곳을 선군14경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받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명령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우리 당에서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이번에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이 될수 있게 건설할것만큼 군대와 사회의 수산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산기지를 일떠세우거나 이미 있던 수산기지를 개진할 때 이 사업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바다 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기대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과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녀성방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4월 21일 오중흥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를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대회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비행훈련을 진행할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정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온 군부대 비행사들은 즉시에 출격태세를 갖추었다.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속에서 비행중대장으로 자라난 김영조영웅비행사의 아들인 김훈이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의 비행모습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김영조영웅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고있소, 대를 이어 날오는 조국수호의 항로요, 잘하오, 정말 잘하오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

로 비행기를 능숙히 조종하여온 김훈은 원수님께 훈련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총정의 보고를 드리였다.

그를 한품에 안으시고 한동안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하다고, 정말 장하다고, 비행사대회에서 한 토론을 주의깊게 들었는데 다진 맹세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영조영웅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진짜배기전투비행사라고, 아버지처럼 조국수호의 항로를 부대의 맨 앞장에서 날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그를 꼭 껴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쌍기편대를 짓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초저공에서의 횡진을 비롯한 어려운 훈련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대들은 임의의 순간에 명령이 내려도 즉시 출격하여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멸적의 폭음을 울리며 원수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놓고야말 용감한 매들의 전투적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사들이 자

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사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항공군의 싸움은 분초를 다룬다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녀성방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녀성방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사격계획과 포병구분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늘 말하는것이지만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고 도식적인 방식과 멋따기를 하는 현상을 철

저히 없애야 한다고, 특히 방사포병들은 전투임무에 맞게 기동으로부터 전개, 목표조준과 사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장에 이미 전개한 방사포병중대들을 보시고 현재 차지한 진지에서 불의에 기동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녀성방사포병들은 평시훈련에서 다져온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육중한 포를 끌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화력진지에 신속히 기동전개하고 사격준비를 끝냈다.

명령에 따라 방사포병구분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사격순차와 방법대로 사격을 개시하였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시뮬된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목표구역을 편속 타격하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해치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타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며 원수격멸의 포탄들이 목표구역을 초도화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바다에 잠기는 목표를 바라보시면서 포사격을 잘한다고, 멋있게 들어맞는다고, 녀성방사포병들이 정말 용타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녀성방사포병들이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깊이 새기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오늘과 같은 정황속에서도 명중탄을 날릴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포사격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녀성방사포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갈 일념을 안고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 더 큰 박차를 가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포병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령장을 모시여 불패의 강군이 있다

진정한 인민의 군대, 정의의 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역사는 80여년간을 헤아린다.

건군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필승불패의 한걸음 걸여온 인민군대의 력사가 보여주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군대의 높은 존엄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도, 창창한 미래도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 강군이 있다.

민족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 세기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며 《대동야공영권》을 꿈꾸는 일제의 100만대군을 격멸하고 항일대전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가렬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격파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강력한 군력,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여주시였다.

총대위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

이 억척의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의 그 존엄한 나날 멀고 험한 철령과 351고지, 초도와 오성산을 비롯한 고지들과 섬초소, 록해공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하기에 이런 썩연원수 드미트리 야조브는 김정일령도자처럼 정치수령으로서의 품모를 완

벽하게 갖추고있으면서도 령장으로서의 자질까지 결미하여 문무에 정통한 위인은 일찌기 없는 위대한 군령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승리가 될 목표물에 일당백으로 준비하고있는 조선인민들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상태는 가장 높은 현대적수준에 이르렀다고 경탄했던것이다.

실로 제국주의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만드시였으며 공화국



## 침략의 궤음을 짓누른 승리자들의 대회

얼마전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진행된 소식은 사람들속에서 널리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눈길을 끌고 충격을 주는것은 온 나라의 비행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는것이다.

비행사는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대회가 진행되는 그 나날 공화국의 평공이 개방되어있었다는 사실은 모두의 가슴에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있다.

원래 령명은 순간도 비우면 안되는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하늘도 주인이 미치는 령역이어서 어느 나라나 항시적인 감시대태를 취하고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개발된 이래, 세계적으로 공군이 태어난 이래 물어볼 여지없는 정설로 굳어진 판례를 깨뜨린 일이 이번 평양에서 펼쳐졌다. 온 나라의 비행사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대회를 진행한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더우기나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낸것은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 때문이다.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도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가장 긴장하고 예민한 지역이다. 대회가 열리던 그날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사상최대규모의 연합공중전쟁연습이 벌어지고있었다. 이른바 《맥스 쉐더》라는 이름의 이 연습은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연습이었다. 훈련도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100여대의 비행기가 참가하였다. 말 그대로 남조선의 하늘은 북침을 노린 비행기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

들로 가득 덮였었다.

그런 위험천만한 시기에 비행사대회를 한것은 놀라운것이지만 전국의 비행사들을 다 평양으로 데려와 평공을 개방한 상례에 행사를 하였으니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격을 표시하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보통의 담력과 배짱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조국수호와 승리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없는 누구도 엄두 못할 일이다.

한마디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는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이 보통이 아니라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하였다. 조선은 지금 제국주의강국인 미국과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에서 승리할 싸움을 하고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공화국에 있다는것이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공화국인민이 믿고있는 사실이다.

지금도 대회장에서 퍼펄퍼펄 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온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괴뢰파가 덮여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평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자체가 우리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며 영웅한 비행사들의 정신세계적 절들을 압도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제국주의침략세력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화국군대의 최강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 사상의

무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에게서 적들을 전멸케 하는 최첨단무기들과 위력하고 현대적인 군사장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력한것은 인민군대의 불타는 조국수호정신과 투철한 사상정신상태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상의 강자들이기에 천만대적도 두렵지 않다고 하시였다.

사상의 힘으로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무찌르는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한 사상의 강군 조선인민군.

TV화면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대회장주석단무대에 전시된 은백색의 한 비행기였다. 1969년 4월 15일 공화국의 평공과에 첨예한 군사적대결에서 승리한 싸움을 하고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공화국에 있다는것이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공화국인민이 믿고있는 사실이다.

지금도 대회장에서 퍼펄퍼펄 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온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괴뢰파가 덮여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평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자체가 우리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며 영웅한 비행사들의 정신세계적 절들을 압도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제국주의침략세력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화국군대의 최강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 사상의

은 나라 인민이 TV화면으로 제1차 비행사대회에서 한 비행사들의 열띤 토론을 들으면서 강렬히 느끼고있다. 그것은 지련 사상정신상태에 있는 강군이 있어 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는 금성철벽이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문제없다는것이다.

《의의 순간에 명령이 내려도 즉시에 출격하여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멸적의 폭음으로 적들을 전멸시킬수 있게 싸움준비를 완성하겠다.》

《허장성세하는 적들을 우리 식의 비행전법으로 타도하겠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만 내려주십시오.》

...

최고사령관앞에서 다진 심장의 맹세대로 조국수호와 멸적의 의지를 불태우며 영웅한 조선의 비행사들은 대지를 박차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우리의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래엔 평양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4월의 따뜻한 계절에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나와 일행은 평양민속공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퉁라곱듬이관, 서해감문, 평양지하철도를 비롯해서 여러곳을 돌아봤다. 문수물놀이장을 찾았을 때는 실내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유희히 보냈다.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거대하기도 하고 웅장화려하기도 한 창조물 하나하나가 인민군대에 의해 건설되었다는것을 알게 됐고 군인들이 많은 일을 하고있는데서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는 국가의 신세를 지는 소비집단으로 되고있는데 조국에서는 인민들이 군대의 덕을 입고있는것이 다. 로씨야, 까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수도도 웅장한바이지만 군대는 용역 백성이 먹여살리는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23일 남조선적십자사에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위문전문은 지난 16일

바치신 귀중한 시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나무중대를 찾으신 주제 101(2012)년 8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는 사연 깊은 감나무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나무중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면서 감나무중대는 선군혁명도사의 갈피에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로 새겨진 중대, 그것으로 하여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아는 중대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중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다정한 사랑과 은정을 부여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그들 한명한명을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러시느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끝없는 선군길을

이여가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한초초초초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을 위해

약속과 편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5월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 어떻게 하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라고 하시면서 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꼭 최고사령관에게 편지를 쓰라고,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가슴뜨거운 약속을 남기시였다.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려 4 000여t의 물고기를 잡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를 받아보신 그이께서는 못내 반가와하시면서 어로전투에서 대단한 성과를 쟁취한 수산사업소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보낸다고, 고맙다고 친필을 보내주시

의 훈련장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훈련열풍을 일으켜주신 선군령장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조선인민군은 만능의 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주체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적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이다.

뜻깊은 태양절에도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친히 대회를 지도하시며 비행사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전군

가든 정이 뜨거우면 온 정도 뜨거운 법이다. 인민군대의 원민은 인민의 원군으로 되고 있으며 가를레야 가를수 없고 멜레야 멜수 없는 이런 순치의 관계를 조국에서는 군민일치, 군민대단결이라고 하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친형제, 친혈육처럼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발걸음을 함께 하는것이 조국의 모습이고 그래서 조선은 더욱 강한것이 아닌가.

김미숙 (재우즈베끼스판동도)

의 장병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은 거레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술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결의시였던 선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은 그의 탁월한 정치실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의 주민들이 모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지도자로 높이 모시고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의 능력은 바로 실력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원수님은 자신의 실력을 앞세워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한 나라를 평도한다는것은 단순히 정치행정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원수님의 실력은 정치행정분야뿐아니라 군사작전분야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군사작전에서 김정은원수님의 대응능력을 시험해보려다가는 엄청난 대재앙을 불러올수 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 담대한 기상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선인민군은 이 세상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백두산강군으로 위용떨치며 무적의 총대로 민족의 운명과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적십자사에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위문전문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한 려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나어린 학생들

를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혁사의 깃발에 붉이친 위인칭송의 열기

## 길림의 4월은 뜨겁다

통일선보편집국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중국 길림에서 진행된 재중동포들의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취재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중국동북방의 이르는 곳마다 귀중한 역사의 사연들이 어려있어 뜨거운 추억을 자아낸다. 송화강반에 자리 잡고 있는 길림은 위대한

### 각지에서 너도나도 길림으로

4월 14일 길림시의 북경로 8호호텔은 이른아침부터 흥성이었다.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려고 각지에서 달려온 재중동포들이 열산안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있었던 것이다.

《이게 심양시의 권현지부장선생이 아니요?》 《무슨시에서도 오셨구만요.》 《우리 흑룡강성에서는 이렇게 큰 (대표단)을 무어가지고 왔습니다.》

손을 맞잡고 반갑게 헤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청년시절에 혁명활동을 벌이신 유서깊은 곳으로서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잘 알려져있는 뜻깊은 고장이다.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혁사의 땅, 길림에서 열리게 될 경축행사장으로 달려갔다.

를 나누는 동포들속에는 멀리 떨어진 대원수에서 온 윤영화동포일행도 있었고 목단강시와 계서시 등에서 기차를 타고 달려온 동포들도 있었다. 길림에서 수백km 떨어진 통화시에서 왔다는 리성학, 리성자남매들도 볼수 있었다.

민중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재중동포들은 우리가 태양절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뜻깊은 태양절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것이였다.

남조월 흑룡강성 목단강지구회 회장은 《4월의 길림은 화창한 봄날이지만 흑룡강성은 아직도 춥다. 그래서 아직 두툼한 솜옷을 입고다니는 흑룡강성사람들을 가리켜 〈흑룡강곰〉이라고들 부른다. 목단강에서 길림으로 떠날 때 역전에서 오래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기차를 갈아타며 왔지만 추운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저마다 아이들처럼 좋아라 웃고 떠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왜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길림에 올 때마다 꼭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듯 같은 심정으로 뒹사시군 한다. 시집갔던 딸이 친정집으로 오는 즐거운

기분이다.》며 웃었다. 친정집으로 오는것만 같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그들의 말에서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고 절세위인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력사의 고장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안고사는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후뭉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80여년전 뜻있는 조선의 열혈청년들은 식민지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처럼 빛을 뿌리시는 위대한 청년지도자를 찾아 저마다 길림으로 달려갔다.

오늘도 중국에 사는 조선동포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길림으로 향한다.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찾아,

협회 부회장은 이곳을 찾은 동포들에게 북산공원이 유명한 것은 경치가 아름다운데도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사적이 깃들어있어 더욱 널리 알려져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동포들은 북산공원에서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이께서 비밀회의를 진행하신 약방포지하실을 돌아보았다. 붉은색칠을 한 나무사다리를 타고 내려서면 벽돌로 촘촘히 쌓은 5m가 되나마나한 공간이 나지는데 그곳이 약방포지하실이었다.

약방포지하실을 돌아본 김성일 방공지부장장은 《마로이 좁은 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되고 길림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같이 세상을 들끓이던 사변들이 수없이 조직되었다고 생각하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 길림을 비롯하여 동북지방에 수령님의 혁명활동업적이 깃

들어있지 않는 곳이 없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으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벌려오셨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수령님이시야말로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시어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민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고 격정을 터놓았다. 이것은 그만의 심정이 아니었다. 북산공원을 찾은 재중동포들 누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우리 수령님이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수령님과 같은 대성인은 없다.》며 태양조국의 해외공민된 긍지로 가슴뭉척이었다.

은 민족과 진보적인류가 우리라는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재중동포들의 호의호정인 얼마나 뜨거우기를 우리는 15일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된 태양절경축행사를 취재하면서 때부로 절감하였다. 이날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앞은 재중동포들이 삼가 올린 꽃바구니와 꽃다발들로 황홀한 꽃바다를 펼쳐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

들과 산하지구협회 및 지부대표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원들,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회원들, 길림시에 살고있는 공민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관 일군들을 비롯한 1000여명이 참가한 보고대회에서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사로문 태양절을 맞으며 중국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들이 살고있는 그 어디에서나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어둠던 삼천리강산에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운의 날이며 인류의 앞길에 새 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경사의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지난날 세기지도에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온 세상에 사회주의 보루로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되었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승승장구해올수 있더라는 굳은 마음을 밝히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민족자주국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김일성조선의 새로

운 100년대를 강성부흥의 년대로 빛내어나가기 위한 애국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보고대회가 끝나자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는 주제의 사진 및 도서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태양절경축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태양절경축행사를 통하여 재중동포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대원수님들의 남다른 인민의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재중동포들의 가슴속에 품어안는 위인칭송의 뜨거운 열기를 우리는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려사의 땅에서 사는 해외공민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겠다.》는 김명희 길림시지부 부지부장의 말을 통해서도 더 깊이 느꼈수 있었다.

경축행사에서 받아안은 감동을 누릴길 없애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근처로 흐르는 송화강가로 나갔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둔 송화강,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애도 오늘날도 도도히 끓어오르는 려사의 대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굳게 확신했다.

송화강의 흐름이 영원 하듯이 우리 수령님은 해외 동포들과 온 겨레의 마음속에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으로 영생할것이라는 것을.

본사기자 홍범식



### 불멸의 꽃에 비친 뜨거운 마음



《꽃색깔이 하나같이 선명하고 꽃잎도 크구나.》 《저길 좀 보세요. 한꽃대에 26송이의 김일성화가 폈어요.》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열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을 찾은 재중동포들은 진분홍빛꽃잎과 붉고붉은 꽃잎을 활짝 펼친 태양의 꽃들앞에서 저저마다 발걸음 떼지 못하였다. 활짝 핀 태양의 꽃들을 바라보니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품에 안긴것만 같아 더 눈시울을 적시는 길림에 사는 홍영순동포를 비롯하여 꽃전시회장을 찾은 참관자들의 물결은 그칠줄 몰랐다.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활짝 핀 불멸의 꽃들의 모습에서 절세위인들에 대

남모르게 애서는 이야기, 갖가지 음식들과 안고 찾아준 이야기... 그 모든 사연을 품어안고 태양의 꽃들은 전시회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소리가 없었지만 웃고있었다. 레년에 없이 아름답게 피어난 불멸의 꽃들을 전시회에 내놓은 기쁨을 안고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충정을 다해갈 재중동포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에 뿌리를 내린 태양의 꽃이어서 이렇듯 훌륭한 경축의 꽃바다를 이루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불꽃은 애국충정에 떠받쳐 피어난 태양의 꽃들이어서 불수록 숭엄하게 안겨오는 것 이니라. 실로 자연의 꽃은 철따라 피고지지만 해외동포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태양의 꽃은 계절을 모르며 영원히 새겨준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환희에 휩싸여있는 때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고보니 가슴 벅찬 이 심정을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이 세상은 넓고 넓어도 우리 해외공민들처럼 대대로 태양부를 누려가는 긍지높고 행복한 사람들은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탁월한 정치가이시었고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였다. 지금도 20여년 전 꿈결에도 그리던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옵고 할줄같은 은총을 받아안던 순간을 잊을수 없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한 저희들을 모가께서 불러주시는 수령님께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

### 절절한 그리움 노래에 담안

백두의 천출위인을 칭송하는 재중동포예술인들의 태양절경축음악회가 진행되는 길림육문중학교체육관은 수많은 관람자들을 차고넘쳤다. 재중동포예술인들은 여성 3중창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 여성독창 《내 나라의 푸른 하늘》, 《포진길 걸을 때면》을 비롯하여 많은 종목들을 음악회무대에 올렸다. 그 하나하나의 종목마다에는 이역땅에서도 태양민족의 긍지를 안고사는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감정이 담겨져있어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단동시에 사는 리영호동포가 부른 남성독창 《노래하라 만경대갈림길이어》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리었다.

평복의 피어린 길 헤쳐 오시며 스무해 긴긴 세월 못 잊던 고향집

열려진 사립문을 지척에 보시며 장군님 지나가신 만경대 갈림길이어... 향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며 꿈결에도 잊지 못하시던 그리운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새 조국건설의 불길을 지피시러 강산을 찾으신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를 들으며 재중동포들은 그이의 애국애족의 고결한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이역땅에서 살면서 해외동포들이 가슴속깊이 새긴 인생체험이 있다. 그것은 절세위인을 모시어 조국도 있고 자기들의 운명도 있다는 철리였다.

한세기전 나라없는 설움을 안고 낯설은 타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망국노의 후손들이 오늘날은 절세위인을 모시어 값높은 삶과 존엄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눈을 감으면 어머니조국의 사랑속에 흘러온 나날들이 어려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이 못건디게 그리워 평양하늘가를 바라보며 잠 못 들던 재중동포들이기에 《수령님》, 《태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등의 종목들에서 자기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하였다. 위인칭송의 숭고한 감정을 높은 예술적목표으로 펼쳐보인 음악회는 노래 《불타는 소원》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공연을 본 장금화 할빈사범대학 음악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없이 친근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이역에 살아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다. 하기에 지나게나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 원수님의 안녕뿐이다.》 위대 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이으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미도 다 맡기고 마음 불타는 신념을 소리높이 구가한 태양절경축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본사기자



#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조선반도에 전쟁광풍을 몰아오며 정세를 최극단으로 치달아오르게 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전쟁연습광풍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새해에 들어와 내외의 관심속에 첫출발을 좋게 했는데 모든 시도들이 전쟁연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지없이 좌절되고 북남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다.

수개월간 지속된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은 끝났지만 북남관계전도는 결코 밝지 못하다. 대결과 전쟁행동을 계속되고있으며 《통일》의 미명하에 반통일광판이 민족을 우롱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있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하는 것인가, 통일이나 반통일이나, 평화냐 전쟁이냐 이에 그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관계전도와 관련된 이 엄숙한 물음에 박근혜가 책임적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하여 다음의 공개질문장을 보낸다.

1.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 먹고 먹히우는 제제대결이러면 전쟁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 박근혜는 최근 《통일시대대비》니, 《통일대박》이니 뭐니 하고 《통일》라평을 늘어놓다 못해 멀리 유럽땅에 가서까지 《통일구상》을 광고하며 《통일의 전도사》로 자처해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화해와 단합에 기초한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아니라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이다.

박근혜는 선친인 박정희도 받아들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까지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과 《도이칠란드식 통일》을 력설하고있다.

지어는 《한국주도하의 통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고 있다.

체제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기나 하는가.

우리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체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량방제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량방제통일이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평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과 전세계가 일치하게 지지 공감하고있다.

체제통일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체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며 그것이 초래할것은 전쟁밖에 없다.

박근혜가 우리 나라를 도이칠란드로 착각하고 체제통일을 부르짖는것 같은데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

상이다.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하는 것인가.

우리는 평화통일에도 조국통일대전에도 다 준비되어있다.

박근혜는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대답해야 한다.

2.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를 떠들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한걸음 나가겠다》, 《신뢰조성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표방해나서고있다.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때 특명을 받고 나온 남측수석대표는 《신뢰조성이 대통명의 의지》라고 하면서 한빈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각종 도발과 모략사건조작에 더욱 광분하였으며 지어 《금변사태》까지 운운하고있다.

박근혜는 어느 한 나라 수반을 만나 《북을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 《100번 찍어서 안되면 101번이라도 찍어 쓰러지게 해야 한다》고 망발하고있다.

그레 이것이 박근혜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인가 하는것이다. 대결과 신뢰는 량립될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 어느쪽인가.

3.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리명박의 《비핵, 개방, 3 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리명박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서 걸림돌은 북핵문제》라고 하면서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세계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력설하고있다.

얼마전 도이칠란드행각때에도 《3대대북제안》이니 뭐니 하는것을 내들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떠들었다.

정말 어리석다. 미국의 전면핵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그마위의 서풍짜리 감언리설에 핵을 내려놓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리명박역도도 《비핵, 개방, 3 000》을 내들었다가 쓴맛을 보았다.

박근혜의 《선 핵포기론》은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과 한치도 차이나는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니 뭐니 하는 보자기로 더욱 교활하게 감싼것뿐이다.

북남관계에 《북핵》문제를 내드는 것은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는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을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관계개선을 하자하는 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핵무기없는 세계》를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조선에 미국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

박근혜는 얼마전 유럽을 행각하면서 《핵무기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로 만들때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핵무기를 1 000여개나 끌어들이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들고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해온 장본인은 미국과 피롤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미국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당방위를 위한 동족의 핵억제력을 결코느는 것은 파멸치한 껌변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 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

해마다 그칠 사이이 없이 벌어지는 《키 리졸브》, 《독수리》니, 《올지프리트덤 가디언》이니 뭐니 하는 전쟁연습으로 북남관계가 입는 피해도 막심하다.

그러한 부질없는 불장난질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미국의 핵공갈과 북침전쟁연습을 조선반도긴장과 북남관계파국의 화근이다.

박근혜는 미국핵에 대해 이제에는 할 말을 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당면하여 오는 8~9월에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는 《올지프리트덤 가디언》연습을 그만둔다는것을 선포할 용의는 없는가.

5.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유신정권》이 구축한 콩크리트장벽과 《보안법》을 철폐할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박근혜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 데서 북남사이에 《군사적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4대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장벽을 쌓은것은 누구이고 그것을 누가 허물어야 하는가.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간 콩크리트장벽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서부도이칠란드를 행각한 박정희가 배를린 장벽을 보고 와서 구축한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다.

악명높은 반통일파오악법인 《보안법》 역시 동족을 적대시하고 북과 남을 격폐시키는 또 하나의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이다.

우리는 저주로운 콩크리트장벽해체와 《보안법》철폐를 위해 시종일관

투쟁하여왔다.

그것을 거부하고 북남사이에 장벽을 두겹세겹으로 더 두텁게, 더 높이 쌓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시대에 들어서자면 지난 세기의 낡은 령전의 잔재들인 반통일대결장벽들을 하루빨리 허물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6. 《임신부, 영유아영양지원》같은것으로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는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도적문제해결》과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같은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남사이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수차례 진행하고 인도적지원사업도 하였지만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동용되어 매번 정세를 더 험악하게 만들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었지만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은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야래 나라의 양, 나라의 꽃으로 최상의 혜택을 받고있는 우리 아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그러한 시시껄렁한 놀음이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의 골을 더 깊히 패이게 할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가.

북남관계가 풀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것없이 인도적문제요 뭐요 하는것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박근혜는 만전을 피우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의 제안과 호소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는가.

7.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

6.15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오던 북남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사업은 보수 《선언》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중단되었다.

동족대결정책과 《5.24조치》때문이다.

그로 하여 지난 시기 진행해오던 통일행사와 력사유적공동발굴, 학술토론회, 사회문화교류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강산관광은 6년째 중단상태에 있다.

민간교류를 한다면 마땅히 중단된것

부터 원상복구하는것이 순리이다.

박근혜가 이미 해오던 북남교류와 협력에 빗장을 질러놓은채 《민간교류의 순수한 교류》이니, 《협력》이니 하는것은 자가당착이다.

북남관계를 전면차단, 질식시켜놓고 《공동번영》이니, 《동질성회복》이니 하고 아무리 외위대가 끝이들을 사람이 있다.

극악한 대결광신자 리명박이 북남관계를 파란시킴기 위해 조작한 《5.24조치》를 박근혜가 계속 붙들고있아 있는것은 자기 얼굴이나 깔고 자기 손발을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며 남보기에다 리명박과 똑같은 대결분자라는 인상밖에 줄것이 없다.

이러기 거덜이 날대로 난 《5.24조치》는 더이상 존속되어야 할 하등의 리유와 근거가 없다.

박근혜는 그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8.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는것보다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그곳을 평화와 통일, 화합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이 제안은 이미 오래전에 선임자들이 들고나왔다가 온 민족의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처박힌것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된것만도 가슴아프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곳을 하루빨리 밀어버리기는 고사하고 세상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돈벌이목적에 리용하겠다고 하니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이 실지로 군사분계선상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지역은 언제 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

10.4선언에서는 이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박근혜가 군사분계선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있다 면 마땅히 그 문제부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근혜는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

9. 비방중상지협의를 위반하고 정치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북남고위급접촉협의를 위반하고 비방중상을 하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것은 적반하장외의 가스로운 망발이다.

우리에 대해 입불질을 하고있는것

##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주제 103(2014)년 4월 23일 평 양

## 민족의 물음앞에 대답해야 한다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첫출발을 좋게 매었던 북남관계는 오늘날 한치없고 내다볼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당국은 입으로는 《신뢰》를 부르짖으면서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성의에 도전해나섰다. 비록 이 불장난소동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북남관계는 헤아릴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온 겨레의 성의있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하에서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명의로의 공개질문장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계속 대결과 전쟁행동에 매달리는 남조선집권세력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이다.

박근혜는 집권하기 전부터 북남관계에서 《신뢰》니, 《협력》이니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웠으며 집권 후에는 《통일시대대비》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통일》라평을 곧잘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마나면 유럽땅에까지 찾아가 《3대대북제안》이라는것을 골자로 하는 《드레즈덴선언》

을 발표하면서 통일에 관심이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다.

지금 북남관계에서 불신과 대결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으며 북남쟁방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서해 5개 섬지역을 비롯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사소한 우발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화할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북남관계가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과 전쟁밖에 불러올것이 없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도이칠란드식통일》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체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에 제 자기의 사상과 체도를 강요하는 체제통일은 결국 전쟁을 초래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모두에게 엄청난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라 는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체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량방제통일을 주장하고있으며 량방제통일방안을 그 현실상과 공평정대성으로 하여 온 겨레의 지지를 받고있다.

박근혜가 이러한 현실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한국주도

하의 통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하는것을 보면 그의 머리속에 무엇이 팍 들어있는지 보지 않고도 알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내는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놓고보아도 글자만 다름뿐 신동호도 리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 000》과 일맥상통한 동족대결정책이다.

또 《핵무기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력설하면서도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가 하면 미국의 첨단 핵전력무기들을 끌어들이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온 겨레와 세인의 비난과 저주를 받는 저들의 콩크리트분렬장벽과 불신과 단절, 고립의 장벽인 《보안법》을 없애버릴때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 무슨 《4대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허황한 소리도 하여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또 이런 《정부》가 만들어놓은 북남관계개선의 차단물인 《5.24조치》는 그대로 둔채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임신부, 영유

아영양지원》이니 하는 듣기에도 역겨운 말만 하고있는 남조선집권자들 신뢰할사람을 그 어디에도 없다.

박근혜가 마치 《평화》에 관심이나 있는것처럼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있는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보다는 오늘 조선반도의 최대 열점지역인 서해 5개 섬 주동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북과 남의 어부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이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하는것이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현시국 북남관계가 개선되자면 전적으로 북남수뇌분들의 뜻을 담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리행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의 행동대강이고 리정표인 이 력사적합의들이 실현되었다면 우리 민족은 지금쯤 통일조국을 밝은 아침을 마주하고있을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하는 것인가, 통일이나 반통일이나, 평화냐 전쟁이냐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밝힐 때가 되었다.

박근혜는 민족의 이 물음앞에 심사숙고하여 대답해야 한다.

정학준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도이칠란드에서 이른바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인도주의적문제해결》,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기반구축》, 《동질성회복》이라는 《3대북제안》을 골자로 하는 이 《선언》은 나은지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지만 공화국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에서도 조롱과 배격을 당하고있다.

《관계개선의 걸림돌인 5.24대북조치》해체와 정세완화에 필요한 온 흐름은 피하고

사람사적인것만 언급한 제다. 하기에 북과 남은 7.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첫 조항으로 자주주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공화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과정에 일관하게 이 원칙을 견지하였다. 북남최고수뇌분들이 합의 발표한 6.15공동선언의 진수를 이루는 우리 민족끼리도 민족자주의 리념이고 단합의 리념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아직도 민족의 자주지향에 역행하여 외세의존의 핵목은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고 있다. 이번에 박근혜가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을 거쳐 드레즈덴시를 찾아가 그곳 대학에서 《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한다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머리속에 민족자주의식, 민족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가 교묘만큼도 없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민족분렬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자주는 생명보다 귀중하

객관적으로 볼때 우리 나라는 분렬된 경위로 보나 지정학적위치를 보나 도이칠란드와 비교할수 없으며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놓고보아도 도이칠란드가 통일되던 지난 세기말과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그러나도 박근혜는 《라인강의 기적》이니, 《드레즈덴은 구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국북파 통합의 상징》이라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으며 박근혜를 바로 보겠는가.

북남관계개신과 자주통일이 아니라 외세 등에

어찌가 어떤 장광설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독일의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까지 하였으니 정말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도이칠란드의 통일이 어때기 조선반도에서의 통일의 《모델》이 될수 있는가. 이 땅에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공동의 리익, 조선반도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통일의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자주통일의 길이다.

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실현해나가자면 자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

는 다른아닌 남조선당국과 박근혜 자신이다.

북과 남이 비방중상징을 합하고 돌아서자마자 《군차원의 대북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 《북인권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입부리를 더 못되게 놀리고 괴뢰군과 민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베라살포놀음을 벌린것이 누구이며 해외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병진로선을 시비중상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니, 《불확실성》이니, 《굼주림》이니, 《주인고통》이니 뭐니 하고 험담한것이 누구인가.

첫 단추만 잘 끼우게 해달라고 미사리구를 늘어놓고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배신하여 전쟁연습의 불분명하게 더욱더 위험하게 휘두르고 반공화국핵, 미싸일소동으로 정세를 극한점까지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그러고도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한 약속을 복이 깨고있다》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것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현 북남관계악화의 기본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그러고도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한 약속을 복이 깨고있다》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이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현 북남관계악화의 기본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그러고도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한 약속을 복이 깨고있다》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할 의지가 있는가.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민족공동의 조국통일 대강이고 리정표이다.

북남수뇌분들의 뜻을 담은 이 력사적합의들이 실현되었다면 우리 민족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여 왔을 것이다.

그사이 세계는 크게 변화되고 우리 민족의 위상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세가 강요한 분단의 골목을 벗어던지지 못한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분렬의 년포이 69돌기를 새기도록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구상이 없고 제안이 부족하며 원칙과 방도가 결여되어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현창과 대강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있다.

박근혜는 이제라도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갈 의지를 내보일수 있는가.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리정표이러면 시대와 민족을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에 옹바른 대답을 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하하여 하며 민족이 대단함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거듭되는 성의있는 호소와 경고도 외면하고 외세와 함께 동족을 치기 위한 전쟁불장난소동을 기어이 벌려놓았으며 더 악랄해진 비방중상으로 북남관계를 다시 파국에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놓고는 멀리 유럽에까지 가서 《통일》이니 뭐니 하니 누가 그 소리를 끝이들을것이며 박근혜를 바로 보겠는가.

북남관계개신과 자주통일이 아니라 외세 등에

업고 체제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분수없이 날치는 열강망둥이로밖에 볼수 없는것이

박근혜는 외세의존으로 일관된 저들의 요설이 북남간에 신뢰는커녕 불신과 대결의 장벽만을 덧쌓고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것을 명실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조금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통일의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자주통일의 길이다.

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실현해나가자면 자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

본사가자 김철민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북남관계완화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리유중 하나가 미국과 함께 벌린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끝났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독수리》전쟁연습때문에 조선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었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한것이나 같다.

동족을 반대하여 군 두달간이나 온 남북평을 북침전쟁연습의 불마당으로 만들어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실컷 몰아가고는 이제와서 연습이 끝났으니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여론을 내몰려는것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다는 속담을 련상케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온 겨레가 바라는것이다. 하다면 전쟁연습이 끝났다고 하여 북남관계를 가로막고있는 엄중한 장에물들이 당장 사라지기도 했다 단 말인가.

다 아는것처럼 올해에 들어와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온갖 불순한 책동에로 말미암아 엄중한 위기에 처하였다. 특히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

수리》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좋게 볼 북남관계는 된서리를 맞아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정경에로 치달아올랐다.

남조선당국은 말하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무슨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는 상투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규모와 내용, 위험성에 있어서 사상최대의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

를 비롯한 각종 비행기들과 14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하면 이번 훈련은 공중전과 《도발원점타격》, 공중급유, 진출목적, 종신에 침투한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모금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보통 5월에 하던 이 전쟁연습의 시기를 4월로 앞당기기로써 훈련이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의 긴밀한 협동속에서 진행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공중전투훈련으로

등에 업고 각종 전쟁연습들로 맞서 긴장완화의 흐름을 방해한 당사자들이 북남관계완화의 가능성으로 뒤흔어지며 허물어져 가는 발라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지 않을수 없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상대방이 공화국의 선의에 칼을 내두르며 불신과 대결의 장벽만을 높이는데 어떻게 신뢰가 보장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 평화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

최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보통 제5차 남조선미국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어 17일과 18일에는 남조선, 미국, 일본 《차관보급안보회의》라는 것이 벌어졌다. 여기서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북의 도발억제를 위한 연합방위능력증진과 지속적인 연합연습실시》와 《북핵미사일에 대한 긴밀한 공조》 등에 대해 떠들었다.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붙을 터뜨리려는 위험천만한 반공화국대결공조가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도발》에 따른 《연합방위》를 운운하면서 외세의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어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올해에 들어와서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켰었다. 그것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연습인가 하는것은 《평양점령》을 떠들며 사상 최대규모로 벌린 연합상륙훈련 하나만을 놓고

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전지역에 대한 공중타격을 통한 연합공중전쟁연습인 《맥스 센터》를 련이어 벌려놓아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정경으로 몰아갔다.

이번에 벌어진 《3국차관보급안보회의》 역시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것으로서 공화국을 파격으로 하고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그 무슨 《련합방위능력증진》이니, 《긴밀한 공조》니 하는것이 공화국을 핵전쟁태락하기 위한 침략동맹, 전쟁동맹을 강화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 관계개선이냐, 전쟁연습이냐

합동군사연습소동을 끝낼내 버려놓았다.

더우기 40여일간이나 진행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미래평양합대의 핵추진잠수함 《콜럼버스》호와 미제7함대의 기함이며 상륙전지휘함인 《블루리치》호를 비롯한 수많은 최신폭격수단들과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군부당국자들이 올해의 연습규모가 줄어들것이라고 술술 내몰리던 수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번 연습의 성격과 내용도 그 누구의 《지휘세력 및 전략적거점》에 대한 정밀타

격》, 《핵무기제거》, 상륙 및 기습작전, 시가전, 《점령》후 치안작전 등과 같이 극히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것이었다.

스처치날수 없는것은 남조선의 포항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진 련합상륙훈련이다. 《쌍용》의 간판용건이 전쟁연습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극변사태》에 대비한 《핵시설장악과 평양점령》

로 되도록 한 사실만 보아도 내외호전광들이 이번 전쟁연습에 제일먼저 투입되는 미해병대 제3원정대단과 해군기동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과 괴파공고라고도 발광하고 있다. 대 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속에 력대 최대의 상륙훈련, 공중훈련을 2중3중으로 벌려놓고 《북극변사태》에 대비한다느니, 지어 《평양점령》까지 공공연히 운운하면서 도발광기와 핵전쟁발발위험을 극대화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다.

공화국의 대화평화노력을 그 무슨 《화전량면전술》로 모독하면서 년초부터 미국을

전쟁이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남북관계개선》과 《신뢰》가 침략소리가 아니라면 이상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영일

북침전쟁연습들이 벌어지면 시 이러한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깨지고말았다.

이러한 정세의 악순환이 수십여년째 반복되고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제재결을 실현해볼 생각인것 같은데 전쟁이 그처럼 소원이라면 이제 당장이라도 해보는것이 우리 근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근대와 인민은 제 죽을줄도 모르고 함부로 헤딩비는 보수세당을 아예 빼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봄이 깃들게 할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김중혁

은 같다고 밝혔다.

사건이후 대결조치를 취하고 그 무슨 《북의 공격》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전쟁무기 구입과 준비증강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것도 동일하다고 하면서 문평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박근혜가 무인기 사건이라는것을 만들어내어 《천안》호사건과 같이 동족대결에 리용하려 하고있다 고 규탄하였다.

두 사건 다 처음에는 북과 관계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립장을 돌변하여 《북의 소행》이라고 들고나왔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북의 공동조사제를 거부하고 《북의 소행》설을 고집하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았으며 《1번》 글씨와 같은 전혀 남측이 없는 증거라는것을 제시했다는데서도 두 사건

은 같다고 밝혔다.

무인기 사건은 《천안》호 사건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무인기 사건을 조작하고 《트레젠션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6월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꿈꾸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조작 《정부》이다. 북남관계를 파란시키는것은 물론 전쟁까지 하려 하는물론. 또한 국민의 눈에 띄는물이나 흐르게 하는 무능력하고 야비한 《정권》이다.

이런 《정권》이 순순히 퇴진할리 없다.

총결기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권력의 자리에 서 끌어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를 원한다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의 집권자에게 보낸 공개질문장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 누구나가 박근혜에게 던지고있는 엄숙한 질문이다.

올해에 들어와 어떻게 마련된 대화 분위기가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온 7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있는 국도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하여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제항을 련이어 발표하는 등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의 위정자

들은 이에 어떻게 대답하나 싶는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 놓았다.

결국 모처럼 마련된 북남

관계개선편위기가 파란되고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것이다.

북침전쟁연습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이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남북관계개선》과 《신뢰》가 침략소리가 아니라면 이상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영일

북침전쟁연습들이 벌어지면 시 이러한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깨지고말았다.

이러한 정세의 악순환이 수십여년째 반복되고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제재결을 실현해볼 생각인것 같은데 전쟁이 그처럼 소원이라면 이제 당장이라도 해보는것이 우리 근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근대와 인민은 제 죽을줄도 모르고 함부로 헤딩비는 보수세당을 아예 빼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봄이 깃들게 할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김중혁

#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의 재현

##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주장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19일 문평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조작한 무인기 사건의 대결정세를 폭로하였다.

문평은 박근혜가 무인기 사건이라는것을 만들어내어 《천안》호사건과 같이 동족대결에 리용하려 하고있다 고 규탄하였다.

두 사건 다 처음에는 북과 관계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립장을 돌변하여 《북의 소행》이라고 들고나왔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북의 공동조사제를 거부하고 《북의 소행》설을 고집하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았으며 《1번》 글씨와 같은 전혀 남측이 없는 증거라는것을 제시했다는데서도 두 사건

은 같다고 밝혔다.

무인기 사건은 《천안》호 사건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무인기 사건을 조작하고 《트레젠션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6월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꿈꾸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조작 《정부》이다. 북남관계를 파란시키는것은 물론 전쟁까지 하려 하는물론. 또한 국민의 눈에 띄는물이나 흐르게 하는 무능력하고 야비한 《정권》이다.

이런 《정권》이 순순히 퇴진할리 없다.

총결기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권력의 자리에 서 끌어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를 원한다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의 집권자에게 보낸 공개질문장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 누구나가 박근혜에게 던지고있는 엄숙한 질문이다.

올해에 들어와 어떻게 마련된 대화 분위기가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온 7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있는 국도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하여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제항을 련이어 발표하는 등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의 위정자

들은 이에 어떻게 대답하나 싶는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 놓았다.

결국 모처럼 마련된 북남

관계개선편위기가 파란되고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것이다.

북침전쟁연습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이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남북관계개선》과 《신뢰》가 침략소리가 아니라면 이상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영일

북침전쟁연습들이 벌어지면 시 이러한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깨지고말았다.

이러한 정세의 악순환이 수십여년째 반복되고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제재결을 실현해볼 생각인것 같은데 전쟁이 그처럼 소원이라면 이제 당장이라도 해보는것이 우리 근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근대와 인민은 제 죽을줄도 모르고 함부로 헤딩비는 보수세당을 아예 빼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봄이 깃들게 할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김중혁

#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의 재현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19일 문평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조작한 무인기 사건의 대결정세를 폭로하였다.

문평은 박근혜가 무인기 사건이라는것을 만들어내어 《천안》호사건과 같이 동족대결에 리용하려 하고있다 고 규탄하였다.

두 사건 다 처음에는 북과 관계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립장을 돌변하여 《북의 소행》이라고 들고나왔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북의 공동조사제를 거부하고 《북의 소행》설을 고집하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았으며 《1번》 글씨와 같은 전혀 남측이 없는 증거라는것을 제시했다는데서도 두 사건

은 같다고 밝혔다.

무인기 사건은 《천안》호 사건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무인기 사건을 조작하고 《트레젠션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6월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꿈꾸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조작 《정부》이다. 북남관계를 파란시키는것은 물론 전쟁까지 하려 하는물론. 또한 국민의 눈에 띄는물이나 흐르게 하는 무능력하고 야비한 《정권》이다.

이런 《정권》이 순순히 퇴진할리 없다.

총결기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권력의 자리에 서 끌어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 성세의 악순환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지난 21일 남조선 국방부가 연세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천시켰다고 한다. 연세욱으로 말한다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군사이비사령관을 하면서 《정치댓글사건》을 지시하고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등군의 《대선》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들은 《불난 집에서 제 밤을 구워먹으려

다들 이에 어떻게 대답하나 싶는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 놓았다.

결국 모처럼 마련된 북남

관계개선편위기가 파란되고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것이다.

북침전쟁연습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이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남북관계개선》과 《신뢰》가 침략소리가 아니라면 이상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영일

북침전쟁연습들이 벌어지면 시 이러한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깨지고말았다.

이러한 정세의 악순환이 수십여년째 반복되고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제재결을 실현해볼 생각인것 같은데 전쟁이 그처럼 소원이라면 이제 당장이라도 해보는것이 우리 근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근대와 인민은 제 죽을줄도 모르고 함부로 헤딩비는 보수세당을 아예 빼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봄이 깃들게 할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김중혁

# 불순한 목적을 노린 남조국

대사진은 위성사진보다 훨씬 자세한 수준이며 1m내의 물체를 식별할수 있을 정도였다. 사진에서 대통령수소가 있는 관저까지 뚜렷이 구분할수 있었다.》고 월평피하게 떠들며 《북소행실》을 들고나왔다.

제 입으로 화질이 나쁘고 《대공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떠들고도 손바닥 뒤집듯 《북소행실》을 들고나오는 남조선당국의 억지주장은 물체적이라고도 인터넷에서 얼마든 지 구입할수 있다는 사자들이라며 북이 구태어 무인기까지 띄워가며 수고스럽게 촬영하려 하였는가.

남조국 모략의 능수인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증거들이란 이처럼 황당무계하기 이를데 없는것들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떠들고 있는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실》은 《천안》호사건의 복사판으로서 동족을 모해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또다시 격화시키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도발이다.

그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날조된 모략인가 하는것은 그들이 증거로 내놓은 사실자료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실례로 무인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촬영사진만 보기로 하자.

남조선당국은 처음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화질이 나쁘고 이보다 화질이 좋은 사진은 인터넷망에서 얼마든 지 찾아볼수 있다고 하면서 《대공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인의 소행》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 립장을 바꾸어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

# 단평

《방탄인사》

이 여론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말하자면 남조선당국은 군사이비사령부가 감행한 《대선》개입의 화살로부터 청와대를 막기 위한 《방탄인사》를 쏠것이라는 것이다.

하라는 정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리속만을 차리려는 현 남조선당국에 이례적재 민심의 비난과 원성만 높아가고 있다.

김영철

그런데 현 보수당국이 이런 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하려고 하고있으니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하는것이요.

공화국은 이미 《공화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깎아내리고 국제적 압박공조실현을 위해 조작해낸 모략과 음모의 산물인 《북인권》소동에 남조선당국이 가담하지 말것을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허위와 모략으로 가득찬 《북인권결의안》 조작농업을 앞장선데 이어 오늘날은 또 《북인권사무소》설치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고 대결광기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세상에 현 남조선당국과 같이 동족에 대한 국도의 대결의식에 젖어있는 대결광신자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백해무익한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렸듯이 아니라 안팎으로 신랄히 지탄받고있는 자들의 심각한 인권문제를부터 관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현 남조선당국의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 책동을 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가져오게 될 파국적후파에 대해 똑바로 알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부질없는 농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박철남

그런데 현 보수당국이 이런 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하려고 하고있으니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하는것이요.

공화국은 이미 《공화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깎아내리고 국제적 압박공조실현을 위해 조작해낸 모략과 음모의 산물인 《북인권》소동에 남조선당국이 가담하지 말것을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허위와 모략으로 가득찬 《북인권결의안》 조작농업을 앞장선데 이어 오늘날은 또 《북인권사무소》설치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고 대결광기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세상에 현 남조선당국과 같이 동족에 대한 국도의 대결의식에 젖어있는 대결광신자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백해무익한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렸듯이 아니라 안팎으로 신랄히 지탄받고있는 자들의 심각한 인권문제를부터 관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현 남조선당국의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 책동을 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가져오게 될 파국적후파에 대해 똑바로 알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부질없는 농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박철남

그런데 현 보수당국이 이런 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하려고 하고있으니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하는것이요.

공화국은 이미 《공화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깎아내리고 국제적 압박공조실현을 위해 조작해낸 모략과 음모의 산물인 《북인권》소동에 남조선당국이 가담하지 말것을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허위와 모략으로 가득찬 《북인권결의안》 조작농업을 앞장선데 이어 오늘날은 또 《북인권사무소》설치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고 대결광기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세상에 현 남조선당국과 같이 동족에 대한 국도의 대결의식에 젖어있는 대결광신자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백해무익한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렸듯이 아니라 안팎으로 신랄히 지탄받고있는 자들의 심각한 인권문제를부터 관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현 남조선당국의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 책동을 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가져오게 될 파국적후파에 대해 똑바로 알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부질없는 농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박철남

《구조가 지연된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최근 리겨져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온 남조선 땅이 슬픔에 잠겨있다. 23일 20시까지 종합된 자료를 보면 476명의 승선자중 174명만이 구출되고 156명이 사망하였으며 146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라고 한다. 더우기 사망자와 실종자의 대부분이 수하객행객에 올랐던 나머지 고등학생들인것으로 하여 비애와 슬픔은 더욱 커가고있다.

남조선언론 《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를 놓고 《이번 사고는 워낙 황망하기도 하지만 피해규모도 큰데다가 어느 대형참사와 달리 뒤집어지는 배를 지척에서 바라보면서도 배에 갇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든 무기력함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 절망은 온 민중의 가슴속을 후벼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까닭에 나라 따름의 심연에 빠졌다.》라고 전하였다.

그런가하면 실종자가죽

리검없이 감행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이다.

지난해에 온 그 무슨 《30해집공격사건》때에도 보수당국은 처음부터 《북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전면타사를 벌렸지만 왜 상파는 달리 제3국에서 시작된것으로 판명되고 나중에는 《후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국제해커팀이 저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에 세계민전에서 톡톡히 망신만 당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이 정보원이 조작한것이이라는것이 폭로되어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조작되고있는 반공화국모략사건은 어느것이든 다 졸렬하고 유치하게 꾸며지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 당장 걷어치워야 할 무인기와 북인권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0일 외교부 1차관이라는자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유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하였다.》고 하였으며 외교부 대변인 역시 《북인권사무소》설치를 《적극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새누리당》패거리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북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17개의 보수단체들과 악질보수언론들도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를 《축구》한다 어쩐다 소란을 피우고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자들이 벌리는 일종의 광대극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원래 유엔 《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농음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을 위해 조작해낸것으로서 그 불법성과 도발성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소동에 매여달리다 못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려는데 대해서는 모 두가 반대해적하고있으며 그 누구도 그 후보지가 되려고 하지 않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의 이전 《정권》들조차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구조가 지연된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최근 리겨져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온 남조선 땅이 슬픔에 잠겨있다. 23일 20시까지 종합된 자료를 보면 476명의 승선자중 174명만이 구출되고 156명이 사망하였으며 146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라고 한다. 더우기 사망자와 실종자의 대부분이 수하객행객에 올랐던 나머지 고등학생들인것으로 하여 비애와 슬픔은 더욱 커가고있다.

남조선언론 《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를 놓고 《이번 사고는 워낙 황망하기도 하지만 피해규모도 큰데다가 어느 대형참사와 달리 뒤집어지는 배를 지척에서 바라보면서도 배에 갇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든 무기력함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 절망은 온 민중의 가슴속을 후벼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까닭에 나라 따름의 심연에 빠졌다.》라고 전하였다.

그런가하면 실종자가죽

《구조가 지연된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최근 리겨져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온 남조선 땅이 슬픔에 잠겨있다. 23일 20시까지 종합된 자료를 보면 476명의 승선자중 174명만이 구출되고 156명이 사망하였으며 146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라고 한다. 더우기 사망자와 실종자의 대부분이 수하객행객에 올랐던 나머지 고등학생들인것으로 하여 비애와 슬픔은 더욱 커가고있다.

남조선언론 《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를 놓고 《이번 사고는 워낙 황망하기도 하지만 피해규모도 큰데다가 어느 대형참사와 달리 뒤집어지는 배를 지척에서 바라보면서도 배에 갇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든 무기력함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 절망은 온 민중의 가슴속을 후벼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까닭에 나라 따름의 심연에 빠졌다.》라고 전하였다.

그런가하면 실종자가죽

《구조가 지연된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최근 리겨져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온 남조선 땅이 슬픔에 잠겨있다. 23일 20시까지 종합된 자료를 보면 476명의 승선자중 174명만이 구출되고 156명이 사망하였으며 146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라고 한다. 더우기 사망자와 실종자의 대부분이 수하객행객에 올랐던 나머지 고등학생들인것으로 하여 비애와 슬픔은 더욱 커가고있다.

남조선언론 《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를 놓고 《이번 사고는 워낙 황망하기도 하지만 피해규모도 큰데다가 어느 대형참사와 달리 뒤집어지는 배를 지척에서 바라보면서도 배에 갇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든 무기력함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 절망은 온 민중의 가슴속을 후벼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까닭에 나라 따름의 심연에 빠졌다.》라고 전하였다.

그런가하면 실종자가죽

역압과 폭정이 있는 곳에는 대중의 거센 저항이 있다

남조선언론이 강조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8일 사실을 통해 로동자들이 당국의 폭정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설것을 호소하였다. 사실은 리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지역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의 항쟁이 4.19봉기로 폭발되어 독재자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때로부터 5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밝혔다.

부정과 협잡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은 리승만 《정권》과 다를바 없다고 비난하였다.

권력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로 생겨난 현 《정권》하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고통들을 겪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역압과 폭정이 있는 곳에는 대중의 거세찬 반항이 있으며 그 항쟁의 앞자리에 온갖 탄압과 희생을 무릅쓰고 결연히 투쟁을 주도하여

본사기자

